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금융위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각종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마련을 위해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기업체감경기지수(BSI)를 2008년 3/4분기부터 분기 주기로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음.
 - 소비자체감경기지수, 기업체감경기지수는 대표적인 경기지표로서 다른 통계(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속보성이 우수하고, 서울지역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을 진단하기에 유용한 지표임.

2. 조사 방법

1) 소비자체감경기조사

(1) 표본설계

- 소비자체감경기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하였으며 미혼가구는 제외함.

- 목표 표본은 서울 소재 1,000가구이며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는 연령별 구별 비례에 맞게 표본비율을 할당함.
- 부가적으로 권역별 결과 산출을 위해 5대 권역별로 나누어 가구 표본을 할당함.
-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서울 서베이」 등 기존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권역을 구분함.
- 응답대상자는 가구주 및 가구주 부인으로 한정함.

〈표 1〉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25	223	324	260	168	1,000
도심권	1	11	15	12	11	50
서북권	3	26	35	29	23	116
서남권	9	71	97	79	49	305
동남권	4	41	70	55	27	197
동북권	8	74	107	85	58	332

(2) 지수산출 방법 및 분석단위

-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가구부문을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CSI} = & (\text{'매우 나쁨' 응답빈도} \times 0 + \text{'다소 나쁨' 응답빈도} \times 50 \\
 & + \text{'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text{'다소 좋음' 응답빈도} \times 150 \\
 & + \text{'매우 좋음'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end{aligned}$$

- CSI의 범위는 $0 \leq CSI \leq 200$ 이며 CSI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의 체감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분기보다 악화, 100이면 전분기와 보합수준을 의미함.
- 1,000가구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별로 분류함.
-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학력별, 응답자 성별, 가구주 직업별임.

(3) 설문 내용

- 기본조사는 서울지역의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소비자경기전망과 관련된 지수를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함.

〈표 2〉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지수

분류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태도지수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지수 이용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경기판단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예상지수
	구입태도지수	내구재구입태도지수, 주택구입태도지수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소비지출지수	현재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 :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문화비, 기타
	순자산지수	-
	고용상황전망지수	-
	물가전망지수	-

- 분기별 서울의 지역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함.

2) 기업체감경기조사

(1) 표본설계

- 조사 모집단은 서울지역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코스닥 및 거래소 상장기업 8,530개 업체로 정함.
 - 조사 대비 목표 표본수가 500개로 작기 때문에(전경련 조사와는 비슷함) 서울시 기업을 전체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내수기업/수출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조사대상 기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서울 소재 영리 기업을 기준으로 함.
 - 조사대상 기업 지정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서울 소재 영리 기업 명부를 이용함.
- 업종별 모집단 분포를 근거로 목표 표본 500개 업체를 추출함.
 - 네이만 배분방식에 의해 10개 업종, 5개 매출규모로 500개를 업체 비율에 따라 할당함.

(2) 분석단위

- 기업체감경기 부문의 지수 산출 방법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함.
 - 이 방법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산출 방법과 비슷하고 그 기준도 같아 서울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에 사용하기로 함.
 - 경영부문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 기업체감경기지수(B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BSI = ('매우 감소' 응답빈도 \times 0 + '다소 감소' 응답빈도 \times 50 \\ + '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다소 증가' 응답빈도 \times 150 \\ + '매우 증가'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 BSI의 범위는 $0 \leq BSI \leq 200$ 로 BSI가 100 이상이면 기업의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으로 해석함.
- 모집단 대비 응답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응답률이 임의적(Random)이지 않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여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기업들은 응답률이 95%, 소기업은 응답률이 40%일 때, 표본분포가 기업규모에 대해 대표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응용하여 응답률과 업종별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 규모별 가중치는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1차 가중치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BSI = \sum_{i=1}^n w_i \cdot BSI_i$$

응답률 가중치: w_{i1}

업종별 매출액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 w_{i2}

최종 가중치 : $w_i = w_{i1} * w_{i2}$

- 500개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종업원수별, 매출액별 등으로 나눔.
-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종업원수별, 매출액별, 업종별, 기업형태별임.

(3) 설문 내용

- 서울지역의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기업체감경기지수(BSI)와 관련된 세부지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비고
업황지수	-	현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전망
매출지수	내수부문, 수출부문	
경상이익지수	-	
자금사정지수	-	
생산/설비부문지수	생산, 설비 가동률, 설비투자규모	
제품재고지수	-	
종사자수지수	-	

- 분기별로 서울의 지역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함.

3. 조사 결과

1) 소비자경기전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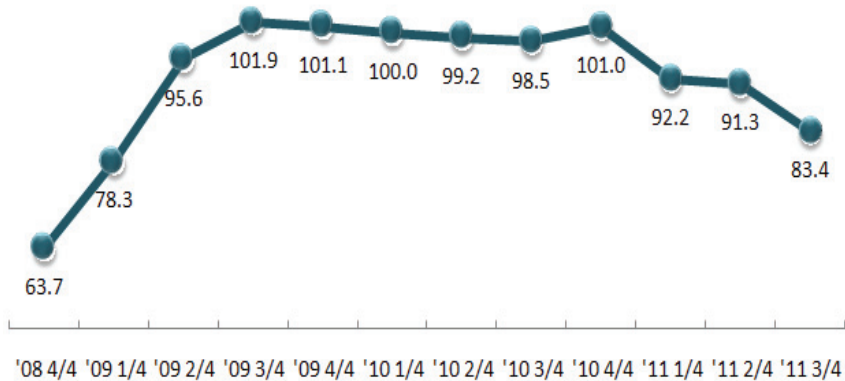
(1) 소비자태도지수

- 2011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83.4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7.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지표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11년 3/4분기에 각각 85.0, 103.2를 기록
 - 「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

- 2011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0.4, 「경기예상지수」는 87.1을 기록
 - － 이는 전분기에 비해 각각 17.6p, 11.3p 하락한 수치로, 경기판단지수가 전체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을 주도
 - － 경기판단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데는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1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3.0p 하락한 91.4,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6.1p 하락한 92.4를 기록

〈표 4〉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0년 4/4분기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2011년 1/4분기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2011년 2/4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2011년 3/4분기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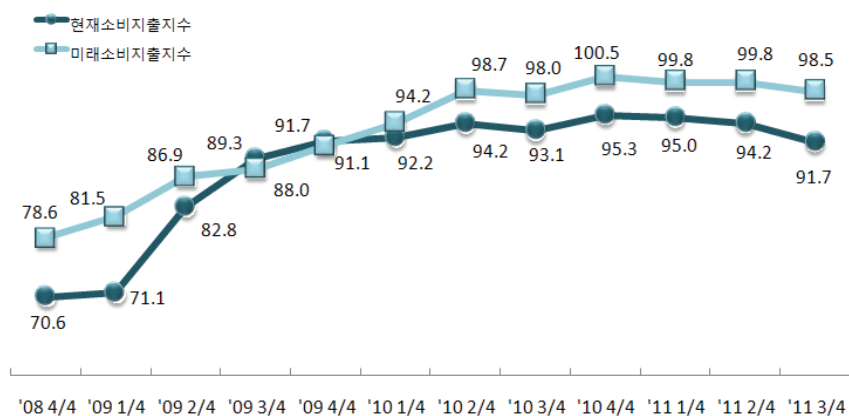
〈그림 1〉 소비자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 2011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보다 2.5p 하락한 91.7,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98.5를 기록하여 두 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
- 2011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95.6로 전분기대비 5.5p 하락하여 3분기만에 다시 기준치(100) 아래로 떨어짐.
- 2011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6.4로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였고, 고용상황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10.8p 하락하여 고용상황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
- 2011년 3/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155.4로 소비자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표 5〉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0년 4/4분기	93.1	98.0	95.9	107.6	157.9
2011년 1/4분기	95.3	100.5	98.4	107.8	147.7
2011년 2/4분기	95.0	99.8	101.8	100.6	154.5
2011년 3/4분기	94.2	99.8	101.1	97.2	1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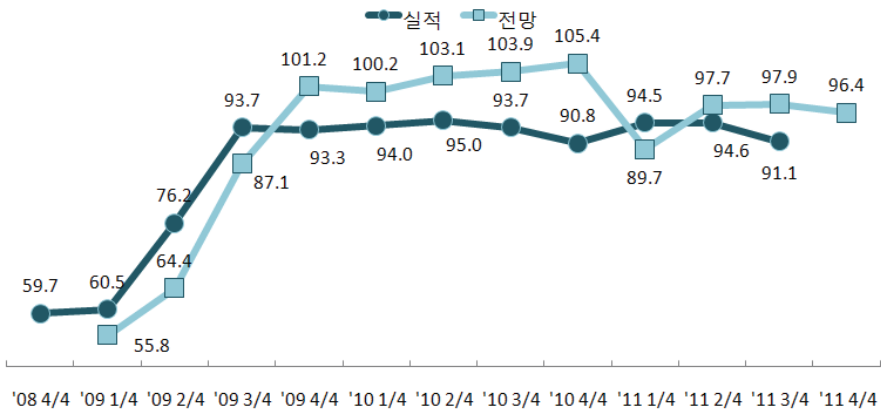


〈그림 2〉 소비지출지수

2) 기업경기전망조사

(1) 업황지수

- 2011년 3/4분기 업황지수는 전분기대비 3.5p 하락한 91.1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4분기 업황전망지수도 96.4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98.2로 전분기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비제조업 역시 전분기(93.3)보다 5.4p 하락한 87.9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4/4분기 제조업의 업황전망지수는 106.8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비제조업은 91.7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3〉 업황 지수

(2) 실적 및 전망 지수

- 2011년 3/4분기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4.5p 하락한 95.8을 기록하여 하락 반전하였으며 4/4분기 매출전망지수 역시 98.1로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11년 3/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7.7p 하락한 92.9를 기록하였으며 4/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 역시 95.9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3/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5.9p 하락한 87.7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 2011년 3/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2p 하락한 94.8로 적정수준인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표 6〉 서울지역 기업경기지수

구 분	실적				전망			
	2010년 4/4분기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매출	96.8	90.6	98.6	100.3	106.5	90.3	102.0	104.1
내수	95.7	90.9	98.6	100.1	107.4	90.5	102.3	103.9
수출	105.4	93.6	97.5	89.3	101.3	102.1	103.2	95.3
생산	101.6	94.3	96.7	94.7	100.9	90.3	104.5	102.1
설비가동률	105.5	90.5	95.1	96.3	98.8	90.8	98.8	103.8
설비투자규모	102.8	93.7	93.1	99.7	98.7	85.9	93.4	97.7
경상이익	94.8	86.5	107.1	100.6	103.3	89.8	109.7	102.7
자금사정	94.6	86.2	101.2	93.6	103.9	93.0	104.5	97.2
제품재고	104.2	108.0	98.7	95.6	103.8	94.6	95.9	99.3
종사자수	89.4	91.5	93.0	97.0	91.4	88.4	96.1	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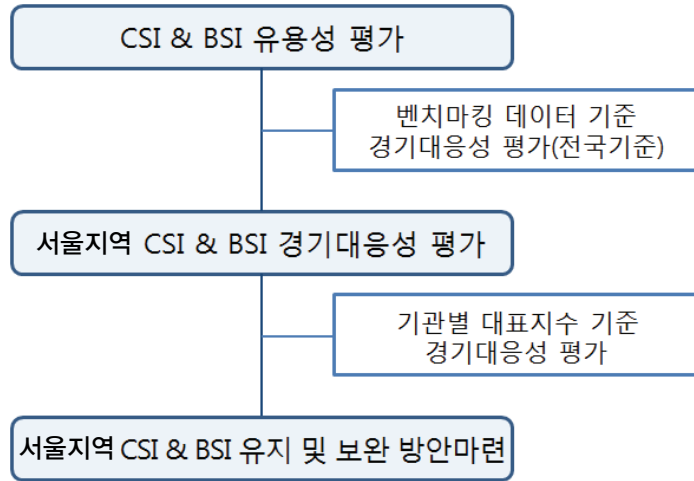
* 전망은 해당분기의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분기 조사된 결과

4.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를 통해 작성된 각 지수는 서울지역 경기를 평가하는 주요 지역통계로서 각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진단이 필요
-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은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대해

-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경기국면별 실물지표와의 경기 시차,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경기 반영성, 그리고 향후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실시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



〈그림 4〉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흐름도

2) 모니터링 결과

(1) 소비자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소비자경기조사와 삼성경제연구소(서울지역), 한국은행(전국)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구분	삼성경제연구소(서울)	한국은행(전국)
소비자태도지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0.989 (0,000**)	0.950 (0,000**)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2)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실적 및 전망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업경기조사와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업황-실적 (전산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962 (0.000**)	0.948 (0.000**)
업황-전망 (전산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955 (0.000**)	0.861 (0.003**)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3) 모니터링 결과 종합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와 기관별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과 소비자경기조사와 기업경기조사 모두 경기반영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
 -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지표를 비교한 결과 각 지수의 경기흐름이 유의한 수준에서 동일한 것으로 분석
 -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 역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기흐름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전면적 개편보다는 지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특성을 현재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3)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개선방안

- 서울지역 소비자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 서울시 권역별 지수의 산출을 통해 공간적으로 보다 세분화된 각 권역의

- 경기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 작성 및 발표방안 모색
- 분기별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되던 부가조사를 가계부채, 주택 및 부동산 경기진단과 같은 조사로 변경하여 주기적 조사를 통해 부족한 관련 통계 보완 및 시계열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울시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방식, 조사샘플, 지수산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 특히 기업경기조사의 부가조사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고용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